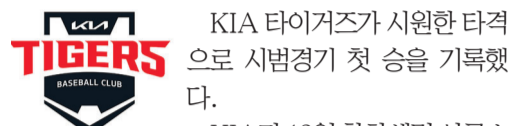


KIA, 장단 12안타 '폭발' 한화 꺾고 시범경기 첫 승

7회 뒤집기로 8-3 역전승



KIA 타이거즈가 시원한 타격으로 시범경기 첫 승을 기록했다. KIA가 13일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8-3 승리를 거뒀다. 전날 5안타 빈타로 1-6 패배를 기록했던 KIA는 장단 12안타로 승리를 가져왔다.

'최고점' 최형우가 두 개의 2루타를 날리며 눈길을 끌었다.

전날 1회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영이 한화 외국인 투수 스미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경기가 시작됐다.

김선빈은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최형우가 좌익수 키 넘는 2루타를 날렸다. 최형우가 가볍게 2루를 밟았지만 후속타자 소크라테스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1회말 KIA 선발로 나선 메디나가 실점을 남겼다.

첫 타자 이원석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문현빈과의 승부에서 유격수 내야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폭투, 패스트볼이 연달아 나오면서 1사 3루, 채은성의 땅볼 때 3루에 있던 문현빈이 홈에 들어오면서 0-1이 됐다.

메디나는 3회 '한 방'을 허용했다.

1사에서 문현빈을 우전 안타로 내보낸 뒤 이어진 채은성과의 승부에서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했다. 메디나는 이후 오그레디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KBO 첫 시범경기에서 3이

닝 4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선발 메디나가 물러난 뒤 전날과 달리 불펜진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정리했다. 윤중현을 시작으로 이준영-전상현-김대우-김유신-정해영이 출격했다. 불펜이 실점 없이 경기를 끌고가자 타선이 응답했다.

1-3으로 뒤진 4회초 김선빈이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최형우가 이번에는 우측으로 멀리 공을 보내면서 2개의 2루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사 2:3루에서 소크라테스의 우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KIA가 1점을 만회했다.

이때 스타트를 끊었던 최형우가 3루에서 아웃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7회 KIA가 대거 4점을 만들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7회초 선두타자 변우혁이 불넷을 골라냈다. 황대인의 유격수 땅볼 때 선행주자가 아웃됐지만, 김호령의 우중간 안타가 나오면서 1사 3루가 됐다. 투수 윤대경의 1루 견제구가 뒤로 빠진 사이 황대인이 홈에 들어왔다.

주축상의 불넷으로 1사 1:2루, 류지혁이 바뀐 투수 주현상을 상대로 우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경기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김도영도 안타를 보태면서 타점을 올렸고, 이어진 1사 1:3루에서는 김규성의 유격수 땅볼로 3루 주자 류지혁이 홈에 들어왔다.

KIA는 9회초 류지혁과 김규성의 2루타 2개 포함 4안타로 3점을 추가하면서 8-3 승리를 기록했다.

대전에서 시범경기 일정에 포함된 KIA는 15일 고척으로 이동해 키움을 상대로 2연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유스 출신 4인방 '태극마크'

엄지성·허율·조성권 올림픽대표 정호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광주FC '유스 4인방'이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 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파리 올림픽 대표팀(U-22)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U-24)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 '에이스' 엄지성과 '장신 공격수' 허율 그리고 김포FC로 임대된 조성권이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의 '살림꾼' 정호연은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4명의 유스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2022시즌 K리그2 영플레이어상에 빛나는 엄지성은 금호고를 졸업하고 2021년 프로에 데뷔, 지난 시즌 65경기에 나와 1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엄지성은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 4년 차인 허율은 192cm의 강력한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와 헤더가 강점으로 꼽힌다. 날카로운 왼발슛을 보유한 그는 지난 시즌 33경기에 나와 6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우승행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호고와 울산대를 거쳐 올 시즌 프로에 뛰어난 조성권은 대인방어, 커버 능력이 뛰어난 중앙 수비수로, 김포FC로 임대될 때나 올 시즌 두 경기를 소화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포함된 정호연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광주의 중원을 누비는 선수다. 적극적인 압박과 투지로 공수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36경기에 나와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프로 첫 시즌에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했다.

한편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23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도하컵 U-22 친선 대회에 참가한다.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카타르에서 중동 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호주와의 경기에서 8회초 3점 홈런을 허용한 뒤 교체되는 양현종. /연합뉴스

바닥 드러난 KBO 투수력...MLB에 도전할 투수 없어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상향 평준화 위한 제도 개편 시급

한국 야구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당한 '도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마운드에 있다.

한국 야구의 투수력이 얼마나 허약한 지 이번 대회에서 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투수력 강화는 한국야구 부활의 가장 큰 숙제가 됐다. 좋은 투수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2026 WBC에서도 참담한 결과를 얻을 것이 자명하다.

◇투수 키워내지 못하는 한국 야구...젓줄부터 말랐다

한국 야구는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장에서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한다.

우선, 프로야구의 젓줄인 고교야구인들은 훈련 환경이 변하면서 제대로 된 투수를 육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명문 덕수고의 정윤진 감독은 "몇 년 전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줄어들면서 선수들이 기초 훈련을 할 만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구속을 끌어올리고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선 하체 강화 훈련 등 기초 체력 훈련을 충실히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선수들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에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훈련 시간의 제한으로 학생 선수들은 기본 훈련보다 당장 성적을 낼 수 있는 투구 등 실전 훈련에

만 집중하게 됐고, 발전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다.

학생 선수들의 학업 문제는 야구계뿐만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체육계 목소리를 듣고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지적한다.

◇KBO리그가 문제...팀은 늘었는데 투수는 없다

2021시즌 KBO리그에서 나온 불넷은 총 5892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현재 KBO리그엔 MLB에 도전할 만한 투수도 없다.

프로야구는 10개 구단 체제가 되면서 양적 팽창에 성공했지만, 투수 자원의 질적 팽창은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 번도 폴다임을 경험하지 못했던 고졸 투수들을 곧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하는 등 근시안적인 전력 운용에 집중했다.

마이너리그, 2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량 발전을 도모하는 미국, 일본 야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 시즌 일본 프로야구 최연소 퍼펙트 투구를 달성한 사사키 로키(지바 롯데 머린스)는 2021시

즌 11경기, 지난 시즌 20경기에만 출전했다. 일본은 긴 호흡으로 투수를 키워낸다.

프로야구에서 제대로 된 훈련 과정을 소화하지 않고 마운드에 올랐다가 불넷을 날발하고 그저 그런 투수가 된 선수는 한두 명이 아니다.

◇고개 드는 외국인 선수 제도 개편안 KBO리그 투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선 국내 현실에 맞는 도안을 다져야 한다.

당장 구단의 수를 줄일 순 없으니 투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좋은 지도자 없이는 좋은 선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야구는 8개 구단 체제에서 팀당 2명의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던 10개 구단으로 재편된 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한 명 더 늘리는데 그쳤다. 반면 일본은 보유 선수에 제한이 없고, 연봉 상한도 없다.

우수한 선수들이 모인 리그는 치열한 생존 싸움을 펼치며 발전하기 마련이다.

KBO리그가 외국인 선수 제도를 유연하게 개정한다면 리그의 질을 개선하고 상향평준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한국 야구는 위기다. 2023 WBC에서의 실패는 2023시즌 KBO리그의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골'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전 원발 감아차기로 멋진 골

손흥민(토트넘)이 3년 만에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 상을 다시 받았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라운드 하우스에서 열린 2023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 수상자로 발표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터뜨린 3골 중 두 번째 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시즌 개막 이후 골 맛을 보지 못하던 손흥민은 후반 14분 교체 선수로 출전해 후반 28분과 39분, 41분 연속 골을 폭발하며 팀의 6-2 승리를 이끈 바 있다.

두 번째 골은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멋진 원발 감아차기로 넣었다.

'올해의 골' 투표에서 손흥민은 마이클 올리세(크리스털 팰리스), 이스마일라 사르(왓퍼드), 폴

스미스(레이오 오리엔트), 라우라 빈로이어(아스널 위민)를 제쳤다.

시상식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은 손흥민은 구단 소셜 미디어로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이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엔 버리와와 리그 경기에서 기록한 '70m 질주 원더골'로 올해의 골 상을 받았다.

그는 2019년에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런던 풋볼 어워즈는 런던을 연고로 하는 12개 팀을 대상으로 9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뽑는 시상식이다.

마르틴 외데고르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 선두 팀인 아스널이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올해의 골키퍼와 영플레이어도 각각 아스널 소속인 에런 램스데이와 부카요 사카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손흥민